

전주시 조촌동, 치매 친화적 마을 조성

네 번째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 가져... 주민센터·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업무협약도 체결

전주시 조촌동이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네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운영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 치매안심센터는 25일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시의원 등과 조촌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촌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또 이날 현판식에 앞서 조촌동 주민센터,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전주반월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주반월2H아파트 주거행복지원센터와 함께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치매 친화적 공동체 구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치매안심마을'은 마을구성원들의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고, 일반주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마을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25일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시의원 등과 조촌동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촌동 치매안심마을 지정 현판식'을 가졌다.

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5월 조촌동 지역의 치매극복선도단체 1개소와 치매안심가맹점 10개소를 지정했으며, 해당 사업장 구성원들은 모두

치매파트너 교육을 받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마을 조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치매안심센터는 향후 조촌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비신청 △치매조호물품지원사업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 지역자원 및 인구 현황 조사와 조촌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를 거쳐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주민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촌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 신청했다.

그 결과 광역치매센터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난 2019년 첫 번째로 지정된 평화동 치매안심마을, 지난해 두 번째로 지정된 진북동 치매안심마을, 지난 3월 세 번째로 현판식을 가진 평화2동 치매안심마을에 이어 이날 네 번째 치매안심마을 현판식을 갖게 됐다.

우범기 시장은 "네 번째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조촌동이 치매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마을주민들께서도 우리 이웃인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흥겨운 타악 퍼포먼스 '아미고'

전주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 공연

전주시를 대표하는 난버벌 퍼포먼스 '아미고'가 완성도를 높여, 5월에 이어 7월 '문화가 있는 날'로 다시 관객들을 찾는다.

전주시는 오는 28일 오후 7시 30분과 29일 오후 3시 등 총 2회에 걸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우수레퍼토리 공연의 일환인 난버벌 퍼포먼스 '아미고(ARMY GO!)'가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펼쳐진다고 25일 밝혔다.

'타악연희원 아미'가 지난 2020년 초연한 난버벌 퍼포먼스 '아미고'는 해외 군악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한 '아미고' 팀이 해외 원정을 떠나는 과정에서 나오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군대에서 있을 법한 상사와의 관계, 문제 해결의 방법 등을 출연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관객과 공유할 수 있는 연기와 코미디로 풀어냈으며, 극중 펼쳐지는 타악공연은 관객들에게 실 틈 없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김옥기 기자

박종대 '타악연희원 아미' 대표는 "관객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작품으로 기획돼 지난 2020년 초연 이후 다양한 초청공연을 통해 작품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왔다"면서 "특히 이번 공연을 위해 많은 부분을 수정 보완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만큼 많은 분들이 함께 관람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현영 전주시 예술단운영사업소장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난버벌 타악 퍼포먼스 '아미고'는 신나는 예술여행과 극장 초청공연을 통해 전국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향후 다양한 지원과 협력을 통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성공사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티켓 예매는 나무칼처에서 할 수 있으며,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70-7558-4023)로 문의하면 된다.

팔복·여의동 일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추진

전주시, 2028년까지 총 494억원 투입... 시민 생활환경 개선 등 기대

전주시가 산업단지외 가까운 팔복동과 여의동 일대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

자)는 팔복동과 여의동 일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우수·오수 분리를 위한 분류식 하수도를 설치하고,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팔복동과 여의동(팔복 3·4분구) 일대에서 추진되는 이번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는 국비 296억 원 등 총사업비 494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총 36.9km 길이

의 하수관로를 신설하거나 교체해 배수 불량지역을 개선키로 하고 동시에 약 670여 가구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우수관로에 직접 연결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2025년 초까지 설계용역을 진행한 후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하수역류 및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25일 혁신동 일대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한 '금연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주시, 여름철 수돗물 집중관리 추진 무주 적상 뽕소니범, 2년 만에 붙잡혀

전주시가 여름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식수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한 집중관리에 나선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박용자)는 여름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유충 관련 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돗물에 대한 점검 및 수질 상태 집중관리를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0개 광역배수지 수질상태 점검 △배수지 창문 및 방충망 점검 △수도꼭지수 100여 개소 표본 조사 실시 등 상수도 공급단계별로 현장을 찾아 수질 상태를 점검키로 했다.

특히, 광역정수를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고산정수장과 용담댐(1등급) 등 정수처리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서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철저한 정수처리 및 시설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오는 8월 말까지 매일 배수지 수질 상태를 점검하고, 수도꼭지 수 수질 점검시 잔류염소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검사를 통해 잔류염소 농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수돗물 집중관리에 나선다. /김옥기 기자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지난 2021년 8월 무주군 적상면 사내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추돌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한 후 인적사항을 허위로 대고 아무런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 행각을 벌이던 뽕소니범 A모씨(남)를 2년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경북 구미에서 검거했다.

무주경찰서 사고조사계에서는 최근 뽕소니범이 대구에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수사를 실시하였고, 주변 탐문 끝에 지난 24일 경북 구미에 있는 식당에 지주 출몰한다는 작은 단서 하나로 잠복 끝에 검거해 무

주경찰서에 유일하게 한 건 남은 뽕소니 사건을 2년 만에 해결했다.

또한, 이 수배범은 본 뽕소니건 외에 4건의 수배가 있어 이를 한꺼번에 검거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로써 무주경찰서는 뽕소니 미제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경찰서가 되었다.

유창종 무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은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 후 보험처리를 하면 큰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보건소, '금연 플로깅 캠페인'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25일 혁신동 일대에서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한 '금연 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했다.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줍다(plucka upp)'와 영어 '달리기(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국제환경보호운동이다.

보건소는 주민들에게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담배꽁

초를 주우며 가두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흡연 폐모형 전시와 리플렛 배부 등을 통해 △담배로 인한 간접흡연 예방 △쓰레기 투기 방지의 중요성 △금연의 필요성 등을 적극 홍보했고, 혁신동 주민센터 앞에서 금연클리닉 상담실 운영을 통해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등을 실시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 행사로 주민들이 금연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금연지원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